



금빛 선율로 염원하는 코로나 극복의 봄날

서귀포관악단 정기연주회
내달 '투게더 첼린지 콘서트'
국제관악제 창작곡 등 선곡
리드의 '교향곡 4번'도 연주
테너 박웅·타악 김성희 협연

금빛 선율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 내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가 있다. 3월 4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의 제69회 정기연주회다.

이동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연주회는 서귀포관악단이 진행해온 '첼린지 콘서트'로 마련됐다. '덕분에 첼린지 콘서트', '제자리로 첼린지 콘서트'에 이어 '투게더 첼린지 콘서트'를 주제로 내걸었다.

이날 제주국제관악제를 계기로 만들어진 창작곡 등 관악제와 인연이 있는 곡들이 잇따라 연주된다. 제주

국제관악제와 동반하며 제주를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공립 관악단으로 활약하고 있는 예술단의 위상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제주국제관악제 관악합주 창작곡 연주회에서 공개된 강동규의 '독수리 날개 아래서'와 최정연의 '무지개 행진곡' 두 편이 청중들을 찾는다. '독수리 날개 아래서'는 날개를 다친 독수리가 회복 후 제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웅장한 모습을 표현했다. '무지개 행진곡'은 비가 그치면 찾아올 일곱 빛깔 무지개의 기운을 그렸다.

차석 단원인 퍼커서니스트 김성희와 함께하는 나탄 도트리외의 '비브라폰과 관악합주를 위한 협주곡'도 준비됐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시인 네루다의 시 '밤의 노래'와 '빛의 방법'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작품으로 비브라폰의 현대적인 음악기법으로 시의 풍부한 이미지를 실어 나른다. 나탄 도트리는 2016년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여했던 작곡가다.

제주국제관악제에서 '현대 관악의



이동호가 지휘하는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거장'으로 조명된 알프레드 리드의 '아르메니아 부활절 주제의 변주곡 에루살렘 찬가'와 '교향곡 4번'도 무대에 올린다. '에루살렘 찬가'는 금관6중주의 팡파레가 인상적이다.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할 '교향곡 4번'은 서귀포관악단의 여덟 번째 교향곡 시리즈로 선곡했다. 1992년 작곡된 작품으로 마지막 3악장에선 현대적인 작곡 기법으로 윈드오케스트라의 모든 기교와 주제를 담아낸다.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테너 박웅의 협연도 예정되어 있다. 박 교수는 오페라 '아를르의 여인' 중 '페데리코의 탄식',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을 선사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사전 예약으로 150명만 입장할 수 있다. 3월 12일엔 서귀포시청과 도립 서귀포예술단 유튜브 채널로 실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739-0641.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마스크 쓴 그 나무의 안위가 궁금하다

양화선 새탕라움서 개인전
일상 속 환경 이슈 등 작업

이따금 대기를 채우는 미세먼지를 일상의 공기처럼 접해오던 상황에서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 상황은 그에게 지금 우리가 과연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되묻게 했다. 그는 거대 담론 이전에 생활 속에서 무지와 무관심으로 벌어지는 '실수'를 경험하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떠올렸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는 양화선 작가가 지난 23일부터 제주시 아트스페이스 새탕라움(서사로 5길 15-1)에서 마련된 개인전을 통해 지난 1년 일상의 변화가 반영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어 모멘터리 랩스 오브 리즌(A Momentary Lapse of Reason)'이란 제목을 단 이번 개인전에서 양 작가는 드로잉, 회화, 영상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이슈를 끄집어 냈다. 흡사 마스크를 쓰고 있는 듯한 나무의 안위가 궁금해지고, 이즈음 인기 식품으로 소비되는 아보카도의 불편한 생산 과정을 떠올릴 수 있다. 제주시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 철거 현장을 에워싼 가림막은 새삼 지속가능한



양화선의 '나무 2' (2021).

도시의 삶을 묻게 만든다. 작가는 말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윤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와 타협을 하지 말고 자연과 타협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생활 곳곳에 습관화 되어버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한다."

전시는 3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사전 방문 신청을 통해 관람 가능한 전시다. 자세한 내용은 새탕라움 웹사이트(www.instagram.com/seetangra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선희기자

해녀박물관, 초등학교 찾아가는 교육

해녀문화·바다 미술 체험

해녀박물관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생(1~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말랑말랑 바다'

를 운영한다. 제주해녀문화와 제주바다를 소재로 다양한 미술기법을 활용한 창의미술 체험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4~6월과 9~11월 중 목요일(총 12회)에 진행된다. 인

원은 30명 내외로 신청 학교 교실에서 90분간 운영된다. 제주해녀와 물질, 해녀도구 및 자연과 공존하는 공동체 소개에 이어 해녀들의 물질 동작을 액제그림으로 표현하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24일부터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학교당 1

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완료한 학교 중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운영된다.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람 불가로 해녀박물관에서 이뤄지는 체험교육(현장학습 포함)은 운영되지 않는다. 오은지기자

서귀포시민 문화향유 갈증 해소한다

시민음악아카데미 운영

22개 과정 개설 169명 모집

오는 4월부터 서귀포시 시민음악아카데미가 운영된다. 단순히 듣고 감상하고, 따라하는 예술향유 방식에서 벗어나 악기 연주 등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3월2일부터 15일까지 서귀포 시민음악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타악기 등 8종의 악기를 연주하는 관악분야 91명과 앙상블, 가장교실로 이뤄진 합창분야 60명이다. 또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현악분야 18명 등 총 3개 분야 22개 과정 169명이다.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누구나 신청(선착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시민음악아카데미.

아카데미는 10월까지 운영되며, 11월에 수료식과 발표회가 열린다. 도립서귀포예술단원 25명이 강사로 참여하며, 서귀포예술단 연습실과 생활문화플랫폼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거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남원읍·안덕면주민센터 등에서도 운영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4개반 168명을 모집해 총 151명이 수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목관앙상블, 합창 등 비대면으로 연주회를 개최했다. 문의 739-0641, 760-2486.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문화가 쏠리

경북 동해안 해녀 사진집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의 해녀들을 담아낸 이동준 사진가의 사진집 '잡녀(潛女) 잠수(潛嫂) 해녀(海女)'(도서출판 걷는사람)가 나왔다.

이번 사진집에는 이동준 작가가 2020년 여름에서 겨울까지 울릉도, 울진 나귀 1·3·6리, 포항 방석리, 호미곶, 경주 감포 등에서 만난 해녀들이 있다. 물질 작업만이 아니라 해녀들의 일상, 마을 신앙과 신목, 폐배, 물질 장비 등도 포착했다. 경북 동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조명하고 오늘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 선보이는 '동해 인문학 시리즈' 중 한 권이다.

고연숙 신작 수필집 발간

초등교장을 지낸 고연숙 수필가가 수필집 '노을에 붙들다'(수필과비평사)를 펴냈다.

'아름다운 뒷모습' 이후 6년여 만에 묶은 이번 수필집에는 40편 가까운 글을 담았다. 서산에 지는 노을을 지극히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고 수필가는 "그동안 힘들었던 삶으로부터 비워지는 시간, 바람 자고 물결 고요해지는 시간"이 왔다면 지 난 시절을 돌아보고 오늘의 일상을 누리는 기쁨을 전하고 있다. 고 수필가는 제14회 황의순문학상, 제1회 제주어문학상을 수상했고 현재 제주수필과비평화작가회 부회장으로 있다.

초등학생 인공지능 강좌

제주시 기적의도서관이 '즐거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온라인(Zoom) 강좌로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3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초등학교 5~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이용하기, 인공지능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간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2025년부터 인공지능이 정규과목과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참가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제주시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제남도서관 청소년 코딩놀이

제남도서관에서 비대면 청소년 코딩놀이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줌(ZOOM)을 활용해 매일 3시간씩 진행되는 '2021 청소년 코딩놀이 교실'은 김영주 코딩강사의 지도로 가상현실에서 창작물을 구현하는 코딩교육이 이뤄진다. 지난 23일 첫 시간에는 'VR과 AR 이해 코스페이스시스 입문'을 주제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개념과 이해에 대한 이론, 코스페이스시스의 개념과 체험수업이 진행됐다. 도서관은 "수강생들이 코딩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 꽃배달 서비스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화원 ☎746-0014, HP 010-3693-556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장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꽃보라 1746-0014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

최신형

대동 트랙터 및 굴삭기

58주년(반세기) 전통 향토의 기업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고품질의 농기구 공급과 신속한 A/S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존디어트랙터의 본 고장 미국 유럽에서 인정한 세계적 수준의 대동트랙터!

좋은품질! 철저하고 신속한 A/S! 한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 전 기종 용자 이자 년2% ■

존디어

6110R / 6120R / 6130R / 6135R / 6145R / 6155R / 6175R / 6215R / 6250R

고출력 친환경의 존디어 eVGT 엔진 탑재 최대 40HP의 추가 출력을 제공하는 파워시스템 탑재 유압식 플링크로 작업기 장착 용이 및 작업성 향상

국산트랙터

PX1300PSC(127마력)

· 25, 35, 40, 45, 51, 55, 58
· 64, 69, 74, 86, 94, 104, 111, 127

하우스형(25~58PS)

25PS / 36PS / 40PS / 45PS / 51PS / 58PS

< 하우스에 맞춘 컴팩트 사이즈 >

굴삭기

친환경 TIER-4 엔진
안전한 4주식 캐노피
배면식 실린더 적용

메크론 운반차

메크론 2450
24PS 디젤엔진 4륜구동

농용전기차

EVO100LA ▶ 48V, 18A ※ 동업용 : 1인승

· 최고 20km/h의 빠른 주행 실현
· 최대 300kg 적재와 강한 등반능력(27°)
· 긴 수명과 탁월한 성능의 리튬 배터리를 기본 장착

58주년 전통 향토의 기업

대동공업제주총대리점

대동기계

TEL 722-2378, 752-6620 H-P. 010-2698-6620

(제주시 광양로터리 구.농협맞은편) ※ A/S공장 : 봉개동 남성기계 721-1472

서귀포영업소

서귀포시 토평동 바석거리 동쪽 300미터 한라산 방향

TEL 762-6620, H-P. 010-2699-6620

트랙터, 콤파인(보리,콩), 축산작업기, 농용굴삭기, 관리기, 감귤운반차, 전기운반차, 전기건조기, 자동호스릴, 파종기, 선별기, 치질, 원판쟁기, 퇴비살포기, 스킵로더, 기타농기계